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04
Apr. 2023
Vol.11 No.04

통 권 104호

- 부활주일 예배
-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
- 새가족 소개
- 교육부 / 목장 소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더위를 피해 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정교회 아이들 (캄보디아 이선진 선교사)

아이들은 자란다 '희망나무' 처럼



부활주일 예배 중 기도하는 R국 소녀 (H선교사)



매일 오후 교회에 모여 성경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캄보디아 싸뭇르교회 최병섭 선교사)

■ 주안에미션 (선교지 소식)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6-7>

지난해 말부터 선교위원회 사역에 참여해 우리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소식을 접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와 문화의 배경을 가진 30여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간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불교와 무슬림이 국교화되어 있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성인 한 사람이 개종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보게 되었다. 가히 마른 땅에 헤딩하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헌신에 머리가 숙여질 따름이다. <11면에 계속>

| 조용대 기자 |

■ 여자축구팀 창단

주안에교회 체육국이 활성화 되면서, 축구를 하고 싶은 여성들의 열정이 모여 여자 축구팀이 창단되었다. 4월 16일 영커플 자매들 8명으로 첫 연습을 시작해, 이제는 10명이 넘는 자매들이 매주 공을 차고 있다. 최형선 감독과 김영진 코치의 지도 아래 공식연습이 주일 목장모임 후 친교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함께 땀흘리며 즐거운 교제를 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안에Hope

재소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주안에호프’ 사역이 본격화 되고있다. 현재 33명의 팀원들이 교도소 방문, 중보기도, 편지교류와 신앙서적 보내기 등을 통해 36명의 수감자 형제, 자매들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돕고 있다. 또한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주안에호프 정기모임을 통해 사역 현황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지난 4월 15일 크리스티나 김 피택권사의 초청으로 오찬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조명희 집사 |



■ 연합 봄소풍

봄바람 살랑이고, 꽃잎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4월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15, 19, 20목장 식구들이 Tapia Park으로 연합 봄소풍을 다녀왔다.

이 세 목장의 오랜 만남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더없이 화목하고 규모가 큰 목장이었던 예전 6목장에서 부목자로 함께 섬기시던 리더들이 분가해 새로운 목장들을 꾸리시게 된 것이다. 이제는 모든 목장이 새가족분들을 맞이하는 준비된 용병목장 역할을 하고 있다.

손재주 좋은 장금이들이 가득한 목장들답게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과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함께 자연을 벗삼아 시원한 바람따라 하이킹을 즐기며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나눴다.

| 이현영 기자 |





‘새 생명의 기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 부활주일 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각 부서마다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IC KIDZ 수화찬양부터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팀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치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잔치 같았습니다.

2개월 전부터 IC KIDZ 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한 구원자이며,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덮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의 수화찬양과 마귀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서 준비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은 '부활기도' 메시지를 통해 기도는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것이니, 우리를 위해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풀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의 말씀처럼,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한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 가운

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그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연상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서 기쁘다. 주안에교회에서 함께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부활의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여서,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과 직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 이현주 집사, 류명수 기자 |

■ 부활주일 사진촬영 이벤트

금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코람데오 청년부에서 친교실을 꾸며주면 좋겠다는 교회 측의 의뢰가 들어왔다.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매년 부활절마다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안에교회에서도 동일한 이벤트를 하면 성도님들께 뜻깊은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준비에 착수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부스를 꾸민 팀, 예배 후 촬영을 담당하는 팀, 성도님들이 편하게 찍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설명해주는 팀으로 나누어서 일사천리로 이날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예쁘게 화장하시고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오신 성도님들의 모습만 보아도 행복해지는 시간이었고, 가족별로, 목장별로, 사역국별로, 다양하게 사진을 찍어드리면서 주안에 교회가 모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국장님들(양태섭 피택장로/양영 권사) 과 청년들은 이날 찍



은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는 작업까지 완료해, 그 다음주 주일에 성도님들께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놓여진 사진들을 보실 때마다 2023년 부활절을 추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길 소망한다.

■ 새가족 글/ 국경진·이재민 집사

■ 신입기자 소감/ 이현영 기자

‘3가지의 설렘’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새가족실에서 교회 소개를 마치고 담당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문을 나선 후에도 이 말씀이 계속 귓가에 남았던 이유는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 맘이 설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설렘, ‘주안에...’ 저희 부부가 교회를 옮긴 이유는 출석하던 교회가 속한 교단의 동성애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끝에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했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ICCCC에 와서 낯설어하는 저희 가족을 새가족부는 반갑게 맞아주시고 주일에 올 때마다 환대해 주셔서 남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참 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설명을 들을수록 ‘주안에...’ 라는 교회 이름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실용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 이름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렘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 설렘, 성도님들... 그리고 목장 인도를 위해 만남을 가졌던 목장 담당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 자녀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뿌리라는 걸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아들을 둔 입장에서 공부도 건강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심에 뒀야 하는 건 ‘믿음’이라는 경험적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고 부모가 본이 돼야 함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이후에 배정받은 19목장 식구들을 만났는데 목자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역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설렘, 설교 말씀... 기도의 뜻을 올리라는 말씀이 시작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은 매달렸던 땅에 내리는 단비같이 우리 부부의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남편의 마음을 터치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면서 큰 감동으로 마치 병어리가 입이 트인 것처럼 설교말씀에 대해 이야기했고 먼저 제안하지 않았는데 부활절 특새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생활 1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많이 놀랐고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설교 ‘파테르’ 시리즈, 부활절 특새 ‘가상 칠언’ 말씀, 금요 로마서 강해... 아직 많은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향기로운 삶 담아내겠습니다

제가 주안에신문을 섬기게 된 것은 사실 저의 온전한 자원은 아니었지만,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니 아마도 전화보단 메시지, 직접 말하기보단 끄적끄적 내 생각을 곱씹으며 글로 표현하는게 더 편한 나의 성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제게 뜻한 바 있어 부족한 저를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권면과 따뜻한 응원 그리고 귀한 사랑으로 이 섬김의 자리로 이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디 한군데 아파봐야 그간 잊었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 각각의 섬김의 자리에 몸담아 봐야 비로소 보이는 몰랐던 수고와 어려움이 이 자리에 와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선한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간 아무 생각없이 가볍게 펼쳐들었던 주안에신문을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몸으로 뛰고 때론 여러분들께 거절을 받음에도 용기와 열심으로 한 장 한 장 기사를 채워 오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라는 나태주 시인의 글귀처럼 기자의 타이틀을 달고 조금 더 자세히 내 주변을 둘러보니 그제야 숨겨져 있는 보석처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안에교회의 여러 곳에 숨겨져 있던 많은 분들의 조용한 헌신과 섬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드러내고 이름을 알리기보단 조용히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신 내 주변의 여러 이야기와 모습들을 더 세밀히 관찰하고 더 관심있게 지켜보며 그분들의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내는 기사를 만들어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작은 소망과 또 여러 사역지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도움의 길을 여는 교두보의 역할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교회는 몸, 우리는 지체로 그중 특별히 주안에신문의 역할은 교회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이니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주안에교회 속 교우들의 따뜻한 일상과 아름다운 섬김을 잘 담아내는 눈과 여러 교회 소식과 숨겨진 많은 분들의 귀한 이야기를 듣는 열린 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하지만 예배를 가기 전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무엇을 발견하고 배울지 아주 많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시적이지 않게 배운대로 기도하고 부지런히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허락해주시고 예비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파테르, 하늘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 IC Kidz 부활절 예배



2개월 연습한 수화 찬양 '예수님 부활하셨네'

4월 9일 부활절 예배 2부 첫 순서로 IC NOW와 POWER 아이들의 순서가 있었다. 흰색과 검정색의 정갈한 복장을 하고 조금 수줍은 모습으로 차례차례 들어와 첫 번째 수화곡 'We Believe'와 한어 찬양 '예수 부활했으니'를 율동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부활의 기쁨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김민재 전도사의 안내 하에 2달 전부터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구해 찬양과 수화, 율동을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연습을 거듭했다고 한다. 잘하는 모습도, 약간 서툰 모습도, 부끄러워서 경직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

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겸손한 모습에 그 어떤 예물보다 기뻐 받으셨으리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이 귀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와 스태프들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성은 기자 |

부활절 주일 몇 주 전부터 딸아이가 주일에 배운 위십을 비디오를 틀어놓고 너무나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퇴근길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숙제하기 바빴는데 어느새 혼자 스스로 숙제를 다 해놓고 비디오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니 그동안의 기도응답을 한번에 다 받은 것처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루아가 만나게 되길 늘 기도 했었는데 이번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 하나 따라하는 딸 아이를 보면서 출퇴근, 살림 등으로 지쳐있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많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앞에 나가서 위십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을 드릴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실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 최지현 집사 |

독도 티셔츠 만들며 역사 학습

■ 주안에한글학교

주안에한글학교에서는 한국문화와 역사 바로알기의 한 주제로 이번 주 “대한민국 섬 독도사랑” 티셔츠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색과 느낌을 덧입힌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과 문구를 적어보면서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또 위치만큼이나 항상 마음 속 저 멀리에 한켠에 있고 있었던 천연기념물(제 336호)로 지정된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섬 독도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함께 배우며 아이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안에한글학교에서는 오는 5월 7일 제 2회 봄소풍도 개최될 예정이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현영 기자 |



■ EM Easter Table Decorations

Taking Part in Easter Celebration



The EM ministry took part in decorating the fellowship hall in preparation of Easter Sunday. Work began on Saturday morning, April 8, after the conclusion of dawn service. From setting place mats and utensils, to going out into the local hiking trail to collect decorative branches, a lot went into the preparations. Despite minor delays and last second work on Sunday morning, EM was able to pull through and finish the job. The final product, as seen in the accompanying photo, conveyed a Spring motif, high-

lighted by the addition of a bird's nest made of chocolate peeps. None of this was possible without Laura Park JSN who came up with the wonderful decoration ideas and oversaw the preparations. A special thanks is also warranted to all EM members who volunteered on Saturday and Sunday of Easter weekend. As big or small as it may seem, every bit of contribution towards these events at ICCC serves as a big contribution in the house of God.

Chris Kim

■ House Invitational at Pastor Chris's

Sharing the Hope of Our Lord

He is Risen! What a wonderful day of celebrating our Savior's Resurrection. From moving musical performances, to Pastor Choi's Spirit-filled sermon, it was a time of true unison in glorifying God. And what better way to cap off Easter Sunday than quality time with our church family at Pastor Chris' beautiful home.

First off, the food: we all know that the hallmark of a good time is good food, and we most definitely had that box checked. Every time I have Mediterranean food, it reignites my dream of moving to Greece, buying a baby-blue Vespa, and riding along the Santorini coast to grab a souvlaki sandwich. But in this case, reality was better than the dream, because the camaraderie shared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s unforgettable.

It was the best way to unwind after what was a very blessed, but hectic day for many of us. Just getting a chance to lounge around, strike up conversations with others, and genuinely chill out is a rare respite from the hustle of everyday life. I love learning about the uniquely fascinating lives of my church family. For example, Katie has a keen interest in business! I look forward to the day I read a glowing Forbes piece about her spearheading a Fortune 500 company.

In remembering the Resurrection of Christ, Hebrews 3 comes to mind. Jesus has been found greater than Moses as the faithful Son over God's house. What an indescribable joy it is to know that, according to verse 6, "...we are His house, if indeed we hold firmly to our



confidence and the hope in which we glory." The Home Invitational at Pastor Chris' house was a real-life testament to this new identity we have in Christ: we are His body, with an eternal home in the Kingdom to come.

Paul Yang



■ ICY Study Hall

중고등부 학생들이 토요일 오전부터 함께 모여 5월에 있을 AP exam 및 학기말 시험을 준비 하기 위해 3주간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신앙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내일을 교회 안에서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세상에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 자녀들이 학업가운데도 성실과 열심으로 임하여,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한다.
| 류명수 기자 |

■ EM Connected Care Packages

Sharing Our Love and Care



On April 23, EM members gathered after Sunday service to help create care packages for our college students who are away from home. A part of EM's Connected Care program, packages are sent at various times throughout the year. "We want to encourage college students who are away," says EM pastor Chris Lee. "Through the packages, we want to lift up their spirits as they prepare for the end of their quarters or semesters."

As a token of encouragement and amicability, care packages included everything from sticky notes and pens, to candy and instant ramen. Also included in the each care package was a custom note to each of our college students with messages of encouragement from EM members remaining at church.

Seeing the Connected Care program as a form of fellowship, Pastor Chris hopes that the packages can shed the love of God to our college students, working hard and climbing towards their goals and dreams. "Our college students may be away from home right now," he says. "But even though we are separated physically, we hope they can know that we are one family."

Chris Kim

■ EM Member Feature/
Matthew Yang

Don't Give Up

The EM ministry is fortunate to have many hardworking and committed members, serving for the glory of God and helping spread the good news to ICCC and beyond. Whether it's a member of the praise team, a small group leader, or any other volunteer, EM has many integral followers of Christ that make up this community. This month, we get to know Matthew Yang, praise leader in the EM and KM ministries.

Matthew explains that his start in praise began out of wanting fellowship. "My first friend here was serving as a praise team leader here," Matthew explains. "I also thought being a praise leader was really cool." Hoping to take part in the 2018 ICY retreat as a praise leader, Matthew quickly got started with the bass guitar. Putting in hours of practice and dedication to the praise team, Matthew was able to bring himself to this point, becoming a permanent staple of the praise team at ICCC.



The journey was not easy. In fact, it was riddled with fears, doubts, and insecurities. However, he eventually realized that praise truly was his calling within ministry. "I remember someone telling me I was prideful by feeling insecure and doubtful," he explains. "At first I didn't know what that meant. But I realized, 'who am I to tell God that I can't do something when he told me that I can and that I am called into this position.' I became

more thankful that I am able to serve in this way." In fact, when he leads praise now, Matthew strives to focus more on God by worshipping Him freely in front of the congregation.

But aside from praise, Matthew sees great value and importance in fellowship. It was at the 2018 ICY winter retreat that he met many of his closest friends. "I didn't accept Christ during the retreat," he explains. "But meeting all these people and seeing their faith walk, it made me question where I am with my faith and if I truly accept Christ as my savior." Indeed, being able to spend time with his friends in ICY and seeing their love and sacrifice for God led Matthew to doing the same.

And through his experiences as a follower of Christ, Matthew hopes others can ultimately find God's love as well. "Don't give up on your faith," he says. "I don't know how to word it better, but just don't give up."

Chris Kim

■ 고난주간 특새 소감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일곱마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교회에 나오거나 zoom을 통하여 매일 평균 3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최혁 담임 목사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하신 일곱 번의 말씀(가상 칠언)을 주제로 하여 말씀을 증거하였다.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고난에 동참하고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어떤 형식을 갖추기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능력, 날마다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맘을 떼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능력임을 알고 간직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을 소개한다.

유연화 권사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 가족이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이 땅으로 이주시키셨고 온전한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기간 설교 말씀을 통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대속의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늘의 풍성한 영의 양식을 매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의 빛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시며 전능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조원 안수집사 지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기간 중,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배반과 수치와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를 하신다.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함을 십자가의 본질을 알지 못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 예수님께는 어떤 수치와 능욕보다도,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지 못함이 더 큰 고통이 되었다는 말씀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나 자신이 나의 죄로 사망 당하여야 할 죄인임을 알더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둔 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신다.

박찬웅, 김혜연 집사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높으신 신이 가장 낮고 추한 자리에서 그의 힘과 능력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과 목적을 이루시기만 힘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 더욱 깊이 만나며 왜 우리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위해 그 귀한 몸을 다 바치셨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가끔 영적인 아버지와 떨어져도 아무런 고통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인정받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임에도 우리를 위해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아무런 박수와 갈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 또한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등 돌린 시간에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달린 한 죄수와 같이, 모든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했던 사도 요한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이루시려 모든 세상의 수치와 고통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성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뜻과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이 되길 소망한다.

■ 6목장 소식

파피꽃 공원에서 소녀처럼 '폴짝'

"엔텔롭 밸리 언덕을 온통 오렌지 빛으로 물들인 파피꽃을 구경 하였습니다.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마음이 파스해지는 봄꽃 여행이었습니다. 미국에 오신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봄꽃 나들이를 하신다고 하면서 들떠 있으신 권사님, 직장장에서 일을 마치자마자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부랴 부랴 달려오신 집사님, 꽃과 경쟁이라도 하듯 아름답게 꾸미고 오신 집사님들,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며 즐거움과 행복함이 가득한 꽃구경이었습니다." -목원 소감

22일 토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파피꽃 구경을 하자고 번개모임을 만들었는데, 심여 분이 참여해서 파스한 햇빛 아래, 파피 꽃밭에서 봄바람 쏘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가졌다.



양태섭, 양영 목사님의 인도하에 교회에 나오신지 2주 된 정경숙 집사님 가정도 오셔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 류명수 기자, 사진: 윤석중 집사 |

■ 여자축구팀 코치를 맡으며

건강 · 재미 · 행복 '3마리 토끼 한꺼번에'

골때녀(골 때리는 그녀들)는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시합을 하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축구를 통해 여성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신선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축구는 남성들만 공감하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몇 달 전 주안예교회 남자축구가 시작되고, 부족하지만 축구팀 코치로 섬김을 하고 있는 저에게 영커플 자매님들이 여자축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첫아이를 출산하고 회복한 지 몇 달 안된 자매님의 요구였습니다.

축구가 어떤 운동이고, 기본기와 경기 운영 방식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기에 전혀 진지하게 들리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주일 저녁 남자축구 모임에 남편을 따라 운동장에 나오는 자매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목장별로 자매님들이 개인 연습을 하고, 장비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던 저에게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러지? 이러다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겠지!' 여자축구팀이 생긴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영커플 자매님들이 주일에 만나면 코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마음에 준비가 없었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 다. 그리고 진지하게 생



각해 봤습니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자축구 교제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만약 여자축구부가 생긴다면 많은 교회들이 놀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축구부처럼 자매님들을 통해 건강한 교제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르고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뒤져 언젠가 사용하려고 구입했던 축구 골대와 장비들을 찾았습니 다. 그리고 축구를 하고 싶다는 자매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운동이어서 가볍게 만나서 뛰어보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 구석엔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첫 모임이 시작되고 두 시간

동안 스트레칭, 기본기 훈련, 첫 시합을 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아내를 응원하는 남편들과 각 목장의 목자님들, 그리고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성도님들까지 놀랍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모임이 끝나고 거친 숨을 쉬는 자매님들에게 계속 할 것인지 물었고 그 대답은 “우리 매주 해요! 너무 재밌어요”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에 놀랐지만 저의 마음 속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시절 여자축구팀을 만들려다 실패했던 기억이 났습니 다. 그 때 실패했던 자매들 중 한 명이 지금의 아내이고, 아내는 지금 여자축구팀의 멤버입니다. 아내의 운동을 지켜보는 남편들의 마음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 다.

여자축구를 참여하는 가정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 다. 밤마다 남편과 공원에서 축구 연습을 하고, 땀 흘려 뛰는 아내들에게 시원한 물과 다리 마사지를 하는 남편들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월드컵보다 더 숨이 막히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축구정신(Respect)이 생각납니 다.

초대 감독님이신 최형선 목자님과 여자축구를 후원하는 체육국의 섬김을 통해 주안예교회 여자축구팀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 김영진 집사 |

■ 21목장 소식

1박2일 '행복여행' 다녀왔어요

비가 그치고 가는 곳마다 꽃들이 얼굴을 내미는 바야흐로 수파 블루밍 시즌에 저희 21목장은 테메쿨라에 가기 전 Aguanga 에 있는 엘림 유황온천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네에 들어서자 철조 구조물로 만들어진 다양한 공룡과 동물들, 로봇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심심치 않았고, 온천장 안의 부지에서는 공작, 꿩, 연소, 타조 등 다양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번 온천 1박2일 여행을 통해, 목원들의 섬김을 보았고, 밤을 새워가며 나눴던, 서로의 신앙 간증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황온천을 통해 심신의 피로도 회복하고 깊은 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뜻깊은 소중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 5명이 한국말로 끝말잇기, 이름 부르기 같은 한국식 게임을 하며 2시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 줄도 모르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 사이몬, 성은 집사님(딸 Lydia) 가정이 함께 해서 더욱 즐겁고 풍성한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이렇게 휴식을 취하며, 가족 같은 목원들과 함께 한 모든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 문성훈 안수집사 |

■ 기행문/ 다시 뉴욕에 와서

병물보다 질 좋은 수돗물, 그것도 무제한 공짜

자녀들이 미국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매년 1,2 회씩 뉴욕과 볼티모어 주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뉴욕 방문 때는 유럽을 여행하고 뉴욕 따님 댁을 방문 중인 드림 2목장의 고용희 안수집사 부부와 우연히 일정이 같아서 식사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같은 목장의 목원을 외지에서 만나니 더욱 반가운 감정을 느꼈다.

필자는 LA 지역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다 보니 거의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와 습기로 인한 끈적함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즐기며 살고있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뉴욕에 갈 때마다 좀 부러운 것을 몇 가지 느끼게 된다.

첫째 양질의 물을 거의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둘째 집 주변이나 산, 심지어 고속도로 주변까지도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며 셋째 100층 이상 되는 멋진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고 미국과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멋져 보인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 이번 여행 기간에 우연히 알게 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 우선 뉴욕은 수돗물의 맛이 좋고 수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한 예로 뉴욕 사람들은 LA나 여타 지역과 달리 정수하여 물병에 넣어 파는 물을 마시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신다. 그만큼 물맛이 좋고 물 공급 설비와 시설이 위생적이기 때문이다. 뉴욕 수돗물의 수질은 전 미국 수질 품평회나 국제 수질 품평회에서 늘 1,2위를 차지할 만큼 공신력이 높다고 한다.

* 뉴욕에서 만들어지는 베이글(bagel) 빵이나 피자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원인을 조사해보니 물맛이 좋기 때문이라 한다. 뉴욕 시와 다리하나 건너면 있는 뉴저지 씨티에 소재한 베이글 제조공장들에서 똑같은 원료

와 제조 방법으로 베이글을 만들어도 뉴욕지역의 베이글 맛이 안 나와서 알아보니 원인이 물 때문임이 밝혀져 매일 아침 뉴욕에 가서 물을 사다가 빵을 만든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 다음으로 뉴욕 시민들은 수돗물 값이 무료다. 맛이 좋고 수질도 좋은 물을 공짜로 마시고 사용한다니 이견 굉장한 황재가 아닐 수 없다. 뉴욕 출신 재벌 존 록펠러 덕분이다. 잘 아는대로 존 록펠러는 1800년대 말 미국 제1의 석유 재벌인데 20대 후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여 40년 동안 돈을 모으고 1937년 별세하기까지 후반 40년은 막대한 부와 명성을 활용하여 자선사업에 전념하였다. 그는 4,900여개의 교회를 세우고 2,400개의 종합

대학과 단과대학을 설립했고 뉴욕 문화복지 재단과 링컨 종합센터 설립 등 많은 일을 하였다. 그 중 뉴욕 시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뉴욕의 새로운 수도시설 설비와 수돗물 공급 관련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로 했는데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에서 계속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 무엇보다 물이 풍부한 뉴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이 허드슨 강 하구

에 위치하고 있어 사철 풍족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허드슨 강은 뉴욕주를 남북으로 흐르는 길이 507 Km, 뉴욕시 부근의 폭이 1.5Km 인데 북쪽의 5대호 중 온타리오 호, 이리 호와 연결되고 나이아가라 강과도 운하로 연결돼 있어 수량이 아주 풍부하다. 허드슨 강이 갑자기 많이 알려진 계기는 2009년 1월 승객 155명을 태우고 이륙한 지 1분 정도 된 US Airways 여객기가 새데와 충돌하여 엔진 둘이 다 꺼져버려 더이상 비행이 불가능해지자 바로 근처에 있는 허드슨 강 상공으로 날아와 조종사의 침착한 조종으로 강물 위에 불시착 탑승 인원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사건이 있었다.

| 나형철 기자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 캄보디아 감뽕참 지역



헌신적인 가정교회 동역자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4월은 가장 더운 시기로 캄보디아 큰 명절인 쫄츠남이 있습니다. 함께 하베스트에서 섬기고 흠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들을 이루고 사역 하는 현지 동역자가정들이 쫄츠남이라고 찾아와서 만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를 전하고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학생시절 저희 집에 와서 여러가지 생필품들과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며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늘 저희가 챙겨 주며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다들 크리스찬 리더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지동역자의 가정들이 저희 가정을 너무 많이 챙겨 주어 감사한 시간이었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 전도사님께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가정에 30 번 이상 가야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 해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절 예배를 세 교회 (프라옥, 파니, 시온) 가 연합해서 시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라옥, 파니 가정교회 성도님들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점심식사도 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가정교회가 모였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이선진 · 정영희 선교사 |

■ 캄보디아 희망나무 사역



저녁 8시면 모여 기도와 찬양

작년 2월에 5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희망 나무 기숙사가 5명의 새 친구들이 함께 하기로 하여 기존 학사 보다 더 크고 좋은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을 숙박을 책임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들이 계시기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작년 기숙사가 처음 시작될 때를 생각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나 통성기도할 때 보면 각자가 서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하는 줄 몰라 힘들어 했는데, 아는 찬양이 없어 매일 같은 곡으로 반복하며 찬양했는데, 올해는 기존 선배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찬양도 하며 5명의 후배들을 이끌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1년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며 이 친구들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되고 프놈펜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텐데 모든 학생이 고향으로 가 찬양팀으로 어린이 예배 교사로,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프놈쓰루잇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이" "홍" "소페악" "쓰라이 퍼으" "메사" "찰리" "니엣" "메사" "씨란" "씨타이" "펜" 총 10명의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땅에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돼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서진원 · 장미 선교사 |



〈1면서 계속〉 기독교 선교에 대한 국가적 차별과 박해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불교나 무슬림, 토착 신앙에 젖어 돌짜발처럼 굳어버린 현지 성인들의 심령 밑에 복음의 씨앗은 싹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힘을 쏟는 분야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이다. 선교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과 방과 후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아이들과

함숙하며 먹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 기숙사 사역 등을 통해 그들 심령 밑에 뿌려진 복음은 옥토처럼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음을 본다.

매일 돌아앉아서 성경 읽기, 기숙사 저녁 예배, 찬양, 그리고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들의 기도까지 합쳐져 그 아이들은 마침내 거목이 되리라 믿는다. 시원하고 넉넉한 그늘을 만들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희망나무는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 음악산책/ 박수의 역사

갈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음악회를 관람할 때 관객은 박수로 자신의 감정과 감동을 표현한다. 일정한 리듬으로 박수를 치기도 하고, 박수 치며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일어서서 치기도 하고, 앙코르를 외치며 연주자를 다시 불러내기도 한다. 박수는 연주에 대한 관객의 감출 수 없는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관습이다. 자유롭고 적나라한 반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던 관객들은 19세기 이후부터는 때를 정해 박수를 치게 되었다. 박수가 흐름을 깬다고 생각하는 음악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박수는 관객이 지켜야 할 에티켓으로 자리잡았다. 이제 아무 때나 치는 박수는 공연에 방해가 되어 연주자와 다른 관객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박수로 연주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연주가 성에 차지 않을 때는 즉각적인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심지어는 무대 위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도 다반사였는데, 이때 주로 사용된 것은 오렌지였다. 관객이 던진 오렌지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연주를 중단해야 했던 작곡가도 있었고, 1704년 런던에서는 오페라 여가수가 사람을 고용해 라이벌에게 오렌지를 던지게 한 일도 있었다. 스페인의 한 공연장에서는 어린 소녀가 광주리에 썩은 오렌지를 담아 파는 광경도 생겨나게 되었다.

박수가 청중의 열기를 반영하는 척도가 되자, 돈을 받고 박수를 쳐주는 박수부대도 생겨났다. 1919년 이탈리아의 한 극장 앞에는 박수의 가격표가 붙었다. (리라-당시 화폐 단위)

- 입장 시 박수 (신사) : 25리라
- 입장 시 박수 (숙녀) : 15리라
- 공연 중 보통의 박수 : 회당 10리라
- 공연 중 강력한 박수 : 회당 15리라
- 앙코르 요청 박수 : 50리라
- 열광적인 박수 퍼붓기 : 스페셜 프라이스



박수갈채에는 자신을 과시하고 세상으로부터 높임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담겨있다. 세상의 박수가 목적인 사람은 박수부대를 동원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와 정반대로 행해야 한다.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6장 1절)' 라고 말씀하신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세상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 세상의 박수를 목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해지는 사람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믿으며 세상의 박수갈채를 목표삼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진력할 때 우리는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 황성남 기자 |



■ '교회를 아름답게'

지난 몇달간 내린 폭우로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잡풀들을 제거하고 교회 곳곳에 쌓여 있는 짐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8일, 29일 양일간 있었다.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봉사하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얼굴에 구슬땀이 흘러 내렸다.